

# 공동주택 관리·감독 부실... 서민피해 급증

자치단체의 공동주택·단독주택·원룸 등 건축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산구의 경우 수완동에 조성중인 고급 연립주택 에이엠빌리지에 부실한 사용 승인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산구는 총 26세대로 구성된 고급형 연립주택 건설과 관련,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로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 내줬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19세대의 사용승인을 취소했다.

구청의 사용 승인을 믿고 입주했던 주민들의 경우 여태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도 현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요청한 관리 담당 건축사 및 사용 승인을 내준 해당 구청을 상대로 불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앞서 광주 자치단체들은 원룸을 신축하면서 쪼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허가 면적 이상 증축하거나 가구수를 늘

려 광주 광산구 준공안된 연립주택 사용승인 뒤늦게 취소

남구 주월동 아파트 건설사가 통행로 제한 주민 불편

입주민 동의없이 아파트 건물 외벽 철거 공사 강행도

해당 구청선 실태 파악 조차 못하고 소극적 대응 일관

린 '원룸 폭방'이 부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해 부실한 관리·감독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남구는 '열악한 예산' 탓만 하면서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지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이지더원 아파트 건설사가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를 제한한 것과 관련, 남구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도시

계획예정도로를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통행로 이용을 둘러싸고 주민과 건설사간 다툼이 계속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

어지고 있는 만큼 관할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다. 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 통행로 확보를 요청했다.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 서쪽 도로와 연결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수시로 폐쇄했다가 개방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남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와 도시계획예정도로 경계선에 높이 1.5m의 철제 울타리까지 치고 주민 보행과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도 했다.

민원이 계속되자 남구는 지난 1월 해당 건설사에 울타리 철거 행정 대집행을 통보했지만 건설사는 이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자치임에도, 행정기관이 주민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우방건설 아파트의 경우 오래전부터 입주주민과 건설사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구청은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건설사가 임의대로 안전시설조차 마련하지 않고 건물 외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잇따르는데도, 행정기관은 "나설 일이 아니다"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민원을 수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서 것이 실질적 지방자치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 해질 02:56  
해짐 19:51 | 달짐 17:00

당분간 비소식 없어요

오후에 구름 개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9/28	보성	맑음	18/27
목포	맑음	18/26	순천	맑음	18/29
여수	맑음	19/25	영광	맑음	18/27
나주	맑음	18/28	진도	맑음	17/25
완도	맑음	18/27	전주	맑음	19/28
구례	맑음	18/30	군산	맑음	18/26
강진	맑음	18/27	남원	맑음	18/28
해남	맑음	18/27	홍산도	맑음	18/25
장성	맑음	17/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서~북서	0.5	서~북서	0.5
남해	남부	남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남서~북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남서~북서	0.5~1.5	남서~서	0.5~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50	05:12	00:00	17:19
여수	06:57	00:53	19:36	12:57

◇주간 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7/1(화)
☀	☀	☀	☀	☀	☀	☀
18/29	21/28	21/29	21/30	21/30	22/30	22/30

◇생활지수

식중독	65
운동	40
빨래	40



“대~한민국” 연호 2014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와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린 23일 오전 광주의 새 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모인 시민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는 이른 새벽부터 1만여명이 운집해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응원을 펼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월드컵 2차전 광주 시민 1만여명 응원전

### 새벽잠 설치며 응원했는데... 초반부터 잇단 실점에 '허탈'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과 알제리간 응원전에 나선던 1만여명의 시민들은 대표팀의 패배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이날 CGV 광천터미널점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스크린과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보며 대한민국을 열렬히 응원했으나 전반부터 0-3으로 뒤지자 실망하는 표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민들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열띤 응원을 이어가며 경기를 지켜보다가 대표팀이 전반 연거푸 골을 내줄때에는 극장 곳곳에서 진한 아쉬움과 탄식이 울려 퍼졌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내 '대한민국', '괜찮아'를 외치며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봤다.

CGV 광천터미널점에서 알제리와의 월드컵 생중계를 관람한 박수진(여·20)씨는 "구차철 선수를 좋아해 밤까지 지새워 응

원하러 나왔는데 전반을 3대0으로 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표팀이 후반 2골을 따라가자 가리앉아 있던 응원단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다.

챔피언스필드에서 응원을 하던 정서현(여·20)씨는 "집으로 가려는데 대표팀 골 장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며 끝까지 선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알제리전이 펼쳐진 당일 해병대 임대를 위해 포항으로 바로 이동해야하던 황태원(21·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친구들과 임대를 앞두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응원장을 찾았다"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진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무등경기장 시절부터 25년간 통닭장사를 해왔다는 강도금(60)씨는 이날 기아챔피언스필드 앞에서 "알제리에게 두 골을 주고 단 한마리도 팔리지 않았다"면서 "장사가 안 되는 것보다 새벽에 일찍 온 응원객들이 허탈하게 경기장을 나서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미네랄이 **3배** 많고  
짠맛은 **10% 이상** 적은

**1004**  
신안원산지

국민의 소금  
**신안천일염**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수입산에 비해 나트륨은 10% 이상 적고 미네랄은 3배 이상 풍부한 세계적인 품질의 명품 소금입니다

자연이 품은 明堂 신안, 신안이 만든 名品 소금 | 신안군청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문의전화, 천일염산업과 061-240-8343, 8348 | www.shinan.go.kr